

美 “동맹과 협력 질서수호” vs 中 “대만독립 지지말라”

외교장관 8시간 마라톤회담...소통유지·민간교류에 뜻모아 양측 “솔직하고 건설적 회담” 평가...친강, 방미 추진키로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대치구도 심화 속에 양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간의 경쟁 관계가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회담과 업무 만찬을 포함해 총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서 미국이 미국민의 이익과 가치를 항상 옹호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세상을 위한 비전을 전진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중국을 현 국제질서의 도전세력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경쟁'에 방점을 찍은 미중관계 인식을 재확인하고,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강 부장은 "현재 중미관계는 수교 이래 최저점에 놓여있다"며 미국 측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핵심이익'과 관련한 엄정한 입장을 밝히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당국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민간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의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작년 11월 발리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합의한 중요한 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이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미중관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공동 워킹그룹 협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오해와 오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교와 폭 넓은 현안에 대한 소통 채널을 열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맨 오른쪽)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맨 왼쪽)이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되는 몇 현안뿐 아니라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양국이 공유하는 초국가적

현안에서 협력을 모색할 기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민의 인적 왕래를 포함한 교류 촉진에 뜻을 같이 했다. 또 상호 편리한 시기에 친강 부장의 미국

답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 대해 미측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평가했고, 중국 측도 "장시간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했다"며 거의 비슷한 평가를 밝혔다.

두 사람이 자국 외교부 수장직에 오른 이후 대면 회담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결국 경쟁과 상호 견제에 방점 찍힌 현재의 미중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돌파구는 이번 회담에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소통로를 열어두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상황관리'에 뜻을 모으는 성과는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인도 54명 사망·美 50도 육박...이상고온에 끓어오른 지구

불볕더위 속 고령자 '건강 경보'

6월 중순 때이른 폭염이 한국은 물론 전세계 곳곳을 덮치고 있다.

불볕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열파'(heat wave)로 야기되는 폭풍 등 기상이변까지 발생하는 모습이다.

18일(현지시간) EFE 통신에 따르면 최근 며칠째 일일 최고기온이 40~45도에 이르는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 북부에서는 지난 3일 동안만 총 54명이 온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타르프라데시주(州) 보건당국은 희생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장기간 햇볕에 노출된 데 따른 열사병 및 탈수 증세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 활동이 많은 일용직 근로자 등이 온열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열사병 증세로 154명이 입원 중"이라고 전했다.

북중미 지역도 해수 온난화 현상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훨씬 높은 기온을 기록 중이다.

AP 통신은 미국 남부 전역에 깊이 퍼져오를 정도의 고온 현상이 이어지



한낮 최고기온이 4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린 18일(현지시간) 멕시코 시민들이 리오그란데강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고 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수온주가 46도까지 치솟았고, 브라운스빌과 코퍼스 크리스티의 경우 49도를 찍었다.

앞서 미국 기후예측센터는 지난 8일 엘니뇨 현상이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멕시코도 한낮 기온이 43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멕시코 보건부는 이번 폭염 기

간 동안 최고기온이 45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부는 최근 열사병과 열경련 등 환자 수가 늘어나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기상당국은 멕시코시티 역대 가장 더운 날이 올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멕시코 역사상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은 미국 접경 소노라주의 산루이스 리오 플로리다다. 1966년 7월 6일 58.8도를 찍었다.

앞서 유럽연합은 이번 달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 평균기온이 지난 1979년 기록한 6월 최고 기온보다 1도 정도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상학자들은 아직 6월이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평균 기온이 이전 최고 기록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엘니뇨' 현상을 감안하면 올해가 역대 가장 더웠던 해인 지난 2016년보다 뜨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한 장에 26억원...‘메시, 사우디와 비밀계약’

최고의 축구 선수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35·아르헨티나)가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사진은 작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홍해 위 요트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이 사진은 사우디 관광 홍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게시물에 달린 '#비지트사우디'라는 해시태그는 사우디 관광청 브랜드다. <사진>

팔로워만 4억7천만 명에 달하는 슈퍼스타 메시가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사우디 정부의 홍보대사로 나섰다. 이는 '의무 휴가'로 메시가 받는 돈은 약 200만 달러(약 25억6천만원)에 이른다. NYT는 메시가 홍해 사진 한 장으로 2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메시의 가족 관광 비용과 숙박료는 전 구단의 정계도 불사하며 허락 없이



시즌 중 사우디를 찾은 메시의 홍보 활동은 사우디 관광부와의 계약에 담긴 의무조항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의무 휴가'로 메시가 받는 돈은 약 200만 달러(약 25억6천만원)에 이른다. NYT는 메시가 홍해 사진 한 장으로 2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메시의 가족 관광 비용과 숙박료는 전 구단 정계도 불사하며 허락 없이 /연합뉴스

코로나19 봉쇄 중 영집권당 파티영상 공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국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집권당 보좌관 등이 이를 무시한 채 파티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타블로이드 미러는 18일(현지시간) 실내에서 사적 만남이 제한됐던 2020년 12월 14일 보수당 당사에서 직원들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장

면이 담긴 45초짜리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벽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독려하는 안내가 붙어있었지만, 누구도 이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누군가가 "우리가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걸 스트리밍하지만 않으면..."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녹음됐다. /연합뉴스



www.slhealth.co.kr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 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 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료기기인증

주요기능 :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윈)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움직임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S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움직임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